

민주당 텃밭 북구의회, 갑질 의원 ‘제식구 감사기’ 빈축

본회의 12대 7 ‘공개 경고’ 의결
자문위 권고보다 수위 한참 낮아
자정능력 상실 도덕불감증 심각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인 광주 북구의회가 직원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민주당 소속 의원에 대해 경징계를 의결하자 ‘숨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가 결정된 만큼 자정능력 상실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구의회는 3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형수 의원(민주당 소속)에 대해 ‘공개 경고’ 징계를 최종 의결했다.

이날 김 의원을 제외한 19명의 북구의원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12명이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안을 찬성했다. 나머지 7명은 공개 경고 징계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징계안 의결에 앞서 손혜진 의원이 ‘윤리특위 징계안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 표결에 들어갔지만 13대 6으로 결국 부결됐다.

김 의원의 갑질 의혹은 지난해 12월 북구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공무원들의 피해 신고가 북구의회 갑질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이후 윤리특위는 A 의원에 대한 징계가 합당

한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에 의견을 구했고, 자문위는 출석 정지 30일과 공개사과 징계를 권고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공개 경고’를 내렸고, 본회의에서도 해당 징계안이 의결되면서 ‘제 식구 감사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김 의원의 ‘심부름’ 갑질 의혹의 경우 북구의회 갑질피해신고센터가 권익위 기준에 따라 증거 불충분 등으로 갑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손혜진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본인이 처리해야 할 연 말정산을 문의하면서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었고, 피해 직원은 큰 용기를 내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의회는 이 용기에 진정성 있게 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정당의 일당 독주 구조는 민주적 경쟁을 저해하고 지역위원장에 대한 충성 경쟁과 줄서기를 부추겨 동료 의원의 명백한 잘못조차 감싸는 병폐가 반복되고 있다”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의회가 누구를 견제하고, 도덕적 권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광주진보연대와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의정혁신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연석회의’도 이날 본회의장을 찾아 피켓 시위를 벌이며 김 의원과 윤리특위 위원 등을 규탄했다. 이에 앞서 지난 29일 민주당 광주시당을 방문해 지방의원 일탈에 대해 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



한강 ‘소년이 온다’ 특별전

광주 수피아 여중생들이 지난 30일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80년 5월 광주의 진실과 정신을 문학과 기록으로 새롭게 조명한 45주년 특별전 ‘소년이 온다’가 열리고 있는 광주 5·18기록관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다. 시민연석회의는 “김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확정하며 결국 제 식구 감싸는 속보이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갑질 사태는 민주당 일당 독점의 폐해를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광장에서는 파면을 외치고 단식을

한들 지역에서는 그 반대의 행보를 취하고 침묵하는 북구의회 민주당 의원들도 2차 가해자이다”며 “민주당 광주시당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조치와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신상 발언을 통해 “세탁, 금융업무, 사적 모임 수행 등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

분이 있다”며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명백한 잘못이 있었던 만큼 직원분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으로 나뉜다.

최환준 기자

광주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1위’

기관 적극 홍보 작년 2.73% 성과

광주시교육청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중증장애인생산물품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는 경쟁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직업재활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법정 의무비율을 제품과 용역 등 총 구매액의 1% 이상으로 정했고, 올해는 1.1%로 향상됐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분청, 산하기관, 학교에서 중증장애인생산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독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펼쳐 2023년

보다 0.83%p 오른 2.73%의 성과를 거뒀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실적이며, 지난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정선 교육감은 “올해 법정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학교, 기관에 적극 안내해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중증장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실적을 꾸준히 관리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기사제보받습니다.

jndnnews@naver.com



광주시 “참진드기 개체수 증가…야외활동 조심하세요”

공원 등서 확인…5월 가장 많아
“기피제 뿌리고 긴소매 입어야”

최근 전북 남원에서 올해 첫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광주에서도 매개체인 참진드기 개체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야외활동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시민들이 자주 찾는 광주지역 근린공원, 등산로, 파크골프장 등 총 41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서식 분포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23개 지점에서 참진드기 한 마리

이상이 확인됐다.

참진드기가 채집된 곳은 일부 공원 주변의 야산과 연결된 초지, 잡목림, 등산로 등이다. 다행히 채집된 참진드기 모두에서 SFTS 바이러스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SFTS 환자의 감염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밭 작업과 성묘 ·벌초 등 제조작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 참진드기에 물리는 시기는 3월부터 10월 사이 주로 발생하며 이 중 5월에 가장 높은 발생률을 보였다. 물린 부위별로는 다리(21.9%), 목(15.5%), 복부(14.6%) 순으로 높았다. 참진드기에 물렸다고 모두 SFTS에 감염되는 것은 아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검사를 통해서도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런 만큼 2주 이상 임상증상이 나타나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 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SFTS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농작업이나 야외활동 시 진드기 기피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 작업복과 일상복을 구분해 입고 밝은색 긴소매 옷 등 진드기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복장도 진드기 물림 예방에 도움이 된다. 풀밭에 앉을 때는 돗자리를 사용하고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은 다니지 않아야 한다. 귀가 즉시 옷은 털어서 세탁하고 샤워 시 몸에 벌레 물린 상처나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윤승환 기자

CELLIA

셀리아의 특별한 케어!

영롱하게 빛나는 생기있는 피부,
건강한 아름다움을 위한 약속

건강한 피부 | 빛나는 삶 | 특별한 케어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길 바랍니다

문의 : 080-385-0080